

연가교

운명이 명운에게
영이 영에게
0

미움이 우미에게게게에게
주름이 미영에게
갔어, 갔어라
보았어, 보리었어라
나영이 우리에게 게 게 게
게
이제가 저기와
산

목구멍으로 사건이 넘어 산
바끄로 아느로 치이고 부르고 산
이치, 고-이치로 룽, 로바 다 은

시우의 포근하고 부들부들한 경계는 우시의 점심식사 시간의 있혀진 운명을 이쏘시게 하는 것으로 친다.
치고 게워내는 명운을 발자취로 몸속 깊이 시우의 부들은 찬

삿대 또 산가 초노 여름이 우려내는 잇속만 챙겨두며 방패를 삼은
삼으로 있어라 넣어둔 만선 산 게 가진 정

읽
씹

0

읽
씹

이르며 지우며 우영 우영 우영

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아고 자고 잤 자그 잔 은 산